

2002 들불축제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고 성 보*

<목 차>

- I. 서 론
- II. 관광객 수요증가 및 소비·투자지출액 추정
- III. 들불축제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 IV. 요약 및 결론

I. 서 론

1997년 제1회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시작된 이래 2001년과 2002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로서 발전하는 등 북제주군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지역의 경제·문화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화합과 위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관람객의 만족도 정도, 지역민의 참여 정도,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등 다양한 들불축제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관광객, 관광수입, 산출, 고용 그리고 소득 증대 측면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수립 및 홍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I. 관광객 수요증가 및 소비·투자지출액 추정

1. 유형별 관람객수 추정

가. 전체 관람객 및 관광객 수 산정

들불축제는 별도의 입장권이 필요없는 개방형 축제로서 관람객 수를 산정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전체 관람객 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산정방법을 활용하였고, 관람객 중에서 관광객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전체 관람객 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은 전체 자동차 수를 산정하고, 자동차 유형별로 평균 탑승인원 수를 곱하는 방식과 축제장 입구에서 계수기를 가지고 전체 관람객 수를 집계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 2-1>과 같이 전체 관람객 수는 자동차 대수에 평균 탑승인원을 곱하는 산정방식으로는 약 19만 8천여명이, 계수기에 의한 집계로는 약 18만 1천여명이 들불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표 2-1> 들불축제 전체 관람객 수

구분	자동차 대수에 의한 산정	계수기에 의한 산정
전체 관람객	198,000명	181,943명
외국인 관광객	1,000명	907명

이상의 두 가지 산정방식 가운데 자동차 대수에 의한 관람객 수 산정은 차종별로 일정한 인원을 적용하는 데는 오차의 범위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수기에 의해 집계된 181,943명을 최종 관람객 수로 산정하였다. 단 이 결과도 다음과 같은 변수들로 인해 다소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축제장 입구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집계한 것이므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

들을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소 중복계수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한 사람 즉, 행사 진행요원이나 공연단, 상가운영자 등 순수 관람객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계수될 수 있다.

전체 관람객 가운데 제주도민이 아닌 관광객을 구별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먼저 자동차 가운데 관광버스와 렌트카를 따로 산정하여 평균 탑승인원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관광객 비율 16.2%, 두번째는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전체 관람객 수 대비 관광객 비율 21.4%, 세번째는 앞서 두 가지 방법의 평균치인 18.8%의 비율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한 결과 관광객 수는 다음의 <표 2-2>와 같이 산정되었다. 단, 외국인관광객은 그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계수기에 의해 집계된 907명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표 2-2> 들불축제 참가 관광객 수

구분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전체 관광객 (전체 관람객 대비 관광객 비율)
시나리오 1 (자동차 대수에 의한 산정)	28,568명	907명	29,475명 (16.2%)
시나리오 2 (샘플조사에 의한 산정)	38,029명	907명	38,936명 (21.4%)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과 2의 평균)	33,298명	907명	34,205명 (18.8%)

나. 순관광객 및 유효관광객 증가 추정

순수하게 들불축제로 인하여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을 추정해 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하여 접근하였는데, 첫번째 개념은 축제기간 동안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과 축제가 없었을 경우의 증감율을 비교하여 그 차이 만큼을 축제행사가 직접 유발한 관광객으로 추정해 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광객을 순(純)관광객 또는 실(實)관광객으로 명명하였다.

두번째는 축제 참가자들의 목적별 성향을 파악하여 단순참가자들을 제외한 관광객을 추정해 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별 성향을 가진 관광객을 유효(有效)관광객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효관광객의 개념은 축제 참가자들의 목적과 제주도 방문 동기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들불축제 참여가 주목적인 경우는 100%, 부수적 목적인 경우는 관람시간과 제주체류기간을 감안하여 행사가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관광객으로 추정해 내는 방식이다.

1) 순관광객 추정

순관광객 또는 실관광객의 추정은 축제 바로 1년전의 2월 마지막주 2001년 2월 23일(금)~2월 24일(토)간과 2002년 2월 22일(금)~2월 23일(토)¹⁾간의 내·외국인 내도 관광객 수 차이 중 축제가 개최되지 않은 가장 최근의 증감율을 초과하는 관광객 수를 들불축제로 인해 직접 유발된 관광객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 근거는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국내·외 경기회복은 (+)요인으로, 국내항공요금의 인상은 (-)요인으로 작용하여 들불축제가 열림으로써 그 증가율은 확대되었거나 또는 감소율을 축소시켰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순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들불축제 바로 이전의 증감율, 항공료인상 등으로 판단된다. 첫째, 2002들불축제 바로 이전의 증감율은 2002년 1월 1일부터 축제가 열리기 이틀전인 2월 21일(목)까지의 전년대비 증감율(8.45%)을, 둘째, 항공료 인상이 관광객 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를 검토하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1년 3월 20일과 4월 2일부터 각각 12.1%와 11.8%씩 국내선 항공요금을 인상했는데, 이러한 요인은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서 항공요금 인상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²⁾ 결과에 따르면, 1% 항공요금의 인상은 내국인 관광수요를 0.5491%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평균요금 인상을 12.1%를 적용하면, 내국인관광객은 6.64%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1) 일요일 까지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일요일에 내도하여 들불축제에 참가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음.

2) 제주발전연구원, “항공요금 인상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1. 3. 내부분석 자료. 추정방법은 1981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내국인 관광객수와 항공운임자료를 이용하여 計量經濟的 기법을 적용한 결과임.

<표 2-3> 2002년 축제 전후 요일별 관광객 증감 추이

(단위 : 명, %)

요일	2001년		2002년		
	일자	관광객수	일자	관광객수	누계증감율
수	2.21	10,999	2.20	10,059	8.73
목	2.22	13,938	2.21	10,627	8.45
금	2.23	11,821	2.22	15,251	8.48
토	2.24	14,446	2.23	16,649	9.23
일	2.25	13,928	2.24	11,768	8.46
금~토합계		26,247		31,900	21.45

자료 : 제주도관광협회.

따라서 순관광객 증가율 추정은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먼저 들불축제 바로 이전의 증가율인 8.45%와 항공료 인상효과인 -6.6%를 감안해 축제가 없을 경우의 가상증감율인 1.85%를 산출한다. 이렇게 추정된 증가율을 들불축제 기간인 2001년 금~토요일까지의 관광객수 26,247명과 2002년 동요일간의 관광객수 31,900명의 증가율인 21.45%에서 차감한 19.6%가 바로 순관광객 증가율이 된다.

<표 2-4> 순관광객 증가율 추정(%)

들불축제 바로 이전의 증감율 (A)*	항공료 인상효과 (B)	축제가 없을 경우의 가상 증감율 C=(A+B)	실제증감율 (D)	순관광객 증가율 E=(D-C)
8.45	-6.6	1.85	21.45	19.6

주)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2월 21일(목)까지의 전년대비 증감율임.

<표 2-5> 2002 정월대보름 축제기간중의 순관광객 수 추정

구분	들불축제기간 (2001년)	축제없을 경우 관광객수(A)	들불축제기간 (2002년)(B)	순관광객 (B-A)
관광객 (내국인+외국인)	26,267	26,753	31,900	5,147

2002 정월대보름 축제기간중의 순관광객수는 축제가 없을 경우의 관광객수³⁾인

3) 2001년의 들불축제기간의 관광객수인 26,267명에 들불축제가 없을 경우의 가상증가율인 1.85%를 감안하여 계산된 것임

26,753명과 실제로 들불축제기간의 실제 관광객수인 31,900명의 차이인 5,147명으로 추정되었다.

2) 유효관광객 추정

축제나 월드컵경기와 같은 이벤트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 참가자의 몇퍼센트를 직접적인 효과로 보아야 하는지를 산정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대부분의 연구는 관람객 또는 입장객의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그 효과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고, 앞절에서 추정한 순관광객의 형태로 접근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유효관광객인데, 이는 축제 참가자의 목적과 제주도 방문동기를 연결시킴으로써 축제참가자들 중에 유효한 관광객을 추정해 이를 효과 분석에 이용하는 관점이다.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참가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부수적인 목적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제주도에 관광왔다가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표 2-6> 축제 참가 관광객의 목적별 구분

구분	빈도	비율
첫째 목적이었다	34	32.1
부수적인 목적이었다	23	21.7
우연한 방문이었다	49	46.2
계	106	100.0

이러한 설문결과중 제주도 방문의 첫째 동기가 들불축제라고 응답한 사람은 100% 모두 유효관광객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어느 정도를 유효관광객으로 분리해 낼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관광객들이 평균적으로 들불축제장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2박 3일(2.5일) 체류시간의 일정 비율을 고려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축제장에 참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축제장안에서 평

균 3.03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일 전체 관람시간을 10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의 30% 정도를 소비한다고 전제하고, 관광객의 평균체류 기간인 2.5일을 감안하여 0.3/2.5의 비율만큼을 감안해 유효관광객의 범주로 분류했다. 따라서 유효관광객 비율은 첫번째 목적이라고 답한 비율 32.1%와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답한 21.7%에 0.12를 곱한 2.6%를 합산하면 전체 관람객의 34.7%로 추정된다.

<표 2-7> 관람객의 축제장 안에서의 소비시간

구 분	빈도	퍼센트
2시간미만	27	25.5
2~3시간	43	40.6
4~5시간	22	20.8
5~6시간	7	6.6
6시간이상	7	6.6
합계	106	100
가중평균	3.03시간	

먼저 축제참가 관광객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 I 은 주차대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관광객의 비율 16.2%, 시나리오 II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관광객 비율인 21.4%, 그리고 시나리오 III은 위의 두 시나리오에서 적용된 비율의 평균치인 18.8%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축제참가 관광객수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에 유효관광객 비율을 적용, 3가지 유효관광객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표 2-8> 시나리오 I (유효관광객)

구 분	참가관광객 수	유효관광객 비율	유효관광객 수
내국인	28,568명	34.7%	9,913명
외국인	907명	34.7%	315명
계	29,475명		10,228명

<표 2-9> 시나리오 II(유효관광객)

구 분	참가관광객 수	유효관광객 비율	유효관광객 수
내국인	38,209명	34.7%	13,259명
외국인	907명	34.7%	315명
계	38,936명		13,573명

<표 2-10> 시나리오Ⅲ(유효관광객)

구 분	참가관광객 수	유효관광객 비율	유효관광객 수
내국인	33,298명	34.7%	11,554명
외국인	907명	34.7%	315명
계	34,205명		11,869명

2. 관광소비지출액 추정

가.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산출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2000.2) 보고서에 따르면 왕복항공요금을 제외한 국내 여행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을 2박 3일 기준으로 여행 형태별로 달리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11>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의 여행형태별 지출액(1999년 기준)

(단위: 원/명)

구 분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쇼핑비	레저 스포츠비	오락 유흥비	기타 경비	1인당 지출액
일반단체	42,000	58,200	59,400	62,933	104,600	60,533	67,333	454,999
수학여행	39,400	15,200	20,000	16,400	4,200	6,000	4,000	105,200
신혼여행	169,929	93,000	98,429	93,629	17,571	14,214	34,000	520,772
가족여행	80,706	63,795	58,795	41,635	23,617	5,449	23,583	297,580
개별여행	48,490	48,923	45,090	24,173	9,327	50,356	27,385	253,744

일반여행객의 경우 1인당 소비액은 261,175원, 수학여행객의 경우는 137,544원, 신혼여행객은 1인당 평균 소비액이 580,204원으로 제시되었다. 가족여행객은 293,418원 이고, 개별여행객은 1인당 소비액이 235,007원이었다.

들불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의 여행형태별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90~2000년 동안의 여행형태별 내국인 관광객 점유율인 일반단체 19.42%, 수학여행 8.28%, 신혼여행 11.97%, 가족여행을 포함한 개별 기타 60.33%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국내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을 계산했는데, 1999년 기준(2.5일 체제기준) 평균 290,959원(2001년 기준 305,507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여행형태별 내국인관광객 점유율(1990~2000년 평균)

(단위 : %)

구 분	일반단체	수학여행	신혼여행	개별기타	합 계
1990-2000평균	19.42	8.28	11.97	60.33	100

자료 : 제주도관광협회, 내부자료.

<표 2-13>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추정

여 행 형 태	소비액(원)	'90-'00평균 여행형태별 점유율(%)
일 반 단 체	261,175	19.42
수 학 여 행	137,544	8.28
신 혼 여 행	580,204	11.97
개 별 기 타	264,213	60.33
합 계	1,243,136	100.0
국내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2.5일기준)	1999년 기준	290,959(원)
	2001년 기준	305,507(원)*

* 2001년 기준 평균소비액임. 추정방법은 1999년 대비 2001년의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상승율 5%을 감안해 계산된 것임.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나. 외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산출

외국인관광객의 경우는 일본인과 중국계, 영어권으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다. 2박 3일을 기준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한 비용은 1인당 2,165,561원, 중국계 관광객은 1인당 473,007원, 그리고 영어권 관광객의 경우는 440,683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4> 제주도 외국인관광객의 세목별 지출액(1999년 기준)

(단위: 원/명)

구 분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쇼핑비	레저 스포츠비	오락 유흥비	기타 경비	1인당 지출액
일본계	353,061	348,824	120,901	729,729	384,035	861,894	282,282	3,080,726
중국계	174,939	105,869	80,006	248,841	9,014	76,199	82,587	777,455
영어권	191,006	80,070	84,710	42,170	18,766	23,580	17,040	457,342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표 2-15> 국가 권역별 외국인관광객 점유율(1995 ~ 2000년)

(단위 : 명, %)

구 분	일본권	비율	중국권	비율	영어권	비율	합계	비율
1995	172,993	71.5	57,488	23.8	11,403	4.7	241,884	100
1996	150,139	71.7	49,572	23.7	9,542	4.6	209,253	100
1997	137,040	74.3	37,715	20.5	9,648	5.2	184,403	100
1998	136,272	60.9	73,793	33.0	13,636	6.1	223,701	100
1999	141,267	57.2	89,036	36.1	16,662	6.7	246,965	100
2000	162,095	56.2	98,017	34.0	28,471	9.9	288,583	100
합계	899,806	64.5	405,621	29.1	89,362	6.4	1,394,789	100

자료 : 제주도관광협회, 내부자료.

<표 2-16> 외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추정

구 분		소비액(원)	'95-'00평균 국가권역별점유율(%)
외국인 소비액	일본계(교포,일본)	2,165,561	64.5
	중국계(홍콩,대만,중국,싱가폴)	473,007	29.1
	영어권(미국,영국,독일,러시아등)	440,683	6.4
계			100.0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999년기준	1,562,636(원)
평균소비액(2.5일기준)		2001년기준	1,640,768(원)*

주) 2001년 기준 평균소비액임. 추정방법은 1999년 대비 2001년의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상승율 5%을 감안해 계산된 것임.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본 연구에서는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을 국가별로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5~2000년 동안의 국가 권역별 점유율인 일본권 64.5%, 중국권 29.1%, 영어권 6.4%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외국인 1인당 평균 소비액을 계산했다. 1999년기준(2.5일 체재기준) 평균 1,562,636원(2001년기준 1,640,768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산업연관표 분류상 지출 비율을 구하기 위해 먼저, 1999년도 기준으로 관광객 세분시장별 총지출액을 계산하여 각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고(<표 2-17>), 이러한 결과를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4)에서의 38개 산업부문의 지역산업연관모형에 대입하기 위해 <표 2-18>과 같이 관광객 항목별 지출 비율을 제

4)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

추계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지출비율에 이미 앞에서 구한 내·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을 곱하여 부문별 지출액을 계산했다.

<표 2-17> 제주지역산업연관모형 적용을 위한 관광객 세분시장별 지출액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계	관광객수	
내국인	일반단체	36,752.9	58,516.8	34,689.6	135,760.1	265,719.4	584,000
	수학여행	3,460.4	11,520.6	4,220.0	2,996.2	22,197.2	211,000
	신혼여행	29,680.4	83,348.5	31,202.0	20,853.8	165,084.7	317,000
	가족여행	69,905.2	242,617.2	98,716.8	88,397.7	499,636.8	1,679,000
	개별여행	15,204.8	61,272.8	28,361.6	54,765.8	159,605.0	629,000
	소계	155,003.0	457,275.9	197,190	302,773.6	1,112,243.1	3,420,000
외국인	일본계	103,086.6	99,153.2	17,079.3	215,885.8	435,204.9	141,267
	중국계	19,997.6	22,566.6	6,429.5	13,484.9	62,478.6	80,363
	영어권	374.9	2,410.1	753.2	528.0	4,066.2	8,891
	소계	123,459.1	124,129.9	24,262	229,898.7	501,749.7	230,521
총계	278,462.8	581,405.7	221,452.0	532,672.3	1,613,992.9	3,650,521	

주) 도소매=쇼핑비, 음식 및 숙박=숙박비+식사비, 운수 및 보관=교통비,
 사회 및 기타 서비스=레저스포츠+오락·유흥비+기타경비로 산출되었음.
 자료 : 송재호·고성보·윤동구, “제주도 관광산업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경영경제연구』
 제2권,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0.8.

<표 2-18> 관광객의 산업연관표 분류상 지출비율(%)

구 분	도소매	음식및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및기타 서비스	계
내국인	13.9	41.1	17.7	27.3	100.0
외국인	24.6	24.7	4.8	45.9	100.0
계	17.3	36.0	13.7	33.0	100.0

주) 도소매=쇼핑비, 음식 및 숙박=숙박비+식사비, 운수 및 보관=교통비,
 사회 및 기타 서비스=레저스포츠+오락·유흥비+기타경비로 산출되었음.

<표 2-19> 관광객 1인당 산업연관표 부문별 지출액(2001년)
(단위 : 원/인)

구 분	도소매	음식및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및기타서비스	계
내국인	42,465	125,563	54,075	83,403	305,507
외국인	403,629	405,270	78,757	753,113	1,640,768

다. 축제참가 도민의 평균 소비지출액 산출

축제 참가자들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산출하기 위해 2002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와 관련해 소비 경비를 설문조사한 결과, 1인당 관광객은 42,354원, 제주도민은 16,705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0> 축제 관련 소요경비 추정(2001년)

(단위:원/인)

구분	관광객	제주도민	전체
평균	42,354	16,705	23,263

그리고 경비지출 대상을 지역산업연관모형의 38개부문에 재구성하기 위해 현지교통비는 운수및보관부문에, 식음료 및 숙박비는 음식점및숙박부문에, 쇼핑비는 도소매업부문에, 유희비 및 기타는 사회 및 기타서비스부문에 각각 조정하였다.

<표 2-21> 1인당 경비지출 대상품목별 지출액

(단위 : 원/인)

항 목	관광객	제주도민	산업연관표상 구분
현지교통비(주차비,연료비,대중교통비 등)	9,308	3,474	운수 및 보관
식음료비(식사, 음료수 등)	9,251	7,216	음식점 및 숙박
쇼핑비(축제기념품, 특산물 등)	4,122	1,766	도소매업
유희비(노래방, 술값 등)	4,287	2,024	사회및기타서비스
숙박비(축제 때문에 숙박한 경우만)	12,804	426	음식점 및 숙박
기타 비용	2,581	1,800	사회및기타서비스
계	42,354	16,705	

축제 관련 경비지출의 산업연관표상 분류에 따르면 관광객은 음식점및숙박에 전체 42,354원의 52.1%를 지출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운수및보관 22%, 사회및기타서비스 16.2%의 순이다. 제주도민도 역시 음식점및숙박에 전체 16,705원의 45.7%를 지출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및기타서비스 22.9%, 운수및보관 20.8%의 순이다.

<표 2-22> 축제 관련 경비지출의 산업연관표상 분류

구 분	관광객		제주도민	
	지출액(원)	비율(%)	지출액(원)	비율(%)
운수및보관	9,308	22.0	3,474	20.8
도소매	4,122	9.7	1,766	10.6
음식점및숙박	22,055	52.1	7,642	45.7
사회및기타서비스	6,868	16.2	3,824	22.9
계	42,354	100.0	16,705	100.0

주) 본 분석결과는 2002. 2월 기준이고, 산업연관효과분석의 기준년도는 2001년도로서 기간차가 1년미만이므로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에 이용하였음.

3. 축제 관련 예산투자의 산업별 분류

축제관련 예산지출액은 2002 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완전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지출계획서를 입수하고, 이 자료를 중심으로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부문별 분류작업을 하였다.

<표 2-23>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집행내역		
	자체사업 (군비)	보조사업 (국비)	합계
일반 운영비	12,900	-	12,900
행사 지원비	168,520	23,000	191,520
재료비	55,000	-	55,000
일시사역인부임	15,500	-	15,500
행사 실비보상금	13,880	26,000	39,880
기타보상금	14,100	-	14,100
민간경상보조	5,000	-	5,000
민간행사보조·위탁	51,500	11,000	62,500
계	336,400	60,000	396,400

자료 : 북제주군 기획감사실 내부자료.

2002년 정월대보름들불축제와 관련된 총예산투자액은 3억 9,640만원이며, 이 중에서 북제주군이 부담한 것은 3억 3,640만원으로 전체의 84.8%, 국비는 6천만원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많이 지출된 부문은 행사지원비가 1억 9천여만원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6.2천만원(15.8%), 재료비 5.5천만원(13.9%)의 순이다.

<표 2-23>을 중심으로 하여 <표 2-24>와 같은 산업연관표상 투자액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부문별 분류를 보면, 사회및기타서비스 부문이 232.3백만원으로 전체 396.4백만원의 58.6%를 차지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쇄, 출판 및 복제가 33.5백만원(8.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8.3백만원(7.1%)의 순이다.

<표 2-24> 산업연관표상 투자액 분류

산업분류	번호	산업연관표상 분류	투자액*(백만원)
1차 산업	7	화훼 및 비식용작물	4.1
2차 산업	15	섬유가죽제품	3.6
	16	목재종이제품	12.4
	17	인쇄, 출판 및 복제	33.5
2차 산업	18	석유 석탄 제품	2.17
	19	화학제품	20.5
	20	비금속광물제품	3.0
	22	금속제품	2.7
	27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9.0
3차 산업	29	건설	17.1
	31	음식점 및 숙박	0.1
	33	통신 및 방송	14.6
	3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8.3
	37	공공행정 및 국방	3.0
	38	사회 및 기타서비스	232.3
계			396.4

주) 산업연관효과분석은 2001년도 기준가격임.

자료 :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12, pp.119-122기준 적용 작성.

Ⅲ. 들불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002년 들불축제가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크게 순관광객 및 유효관광객 증대, 관광수입 증대, 그리고 이러한 관광수입 증대와 축제와 관련된 시설투자가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산출, 고용, 소득증대 효과로 구분하여 이뤄졌다.

1. 순관광객 및 유효관광객 증대에 미치는 효과

들불축제로 인해 증대된 관광객 추정은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 유발된 관광객을 의미하는 순관광객⁵⁾과 축제장에 참가한 사람들의 방문목적을 감안한 유효관광객(시나리오 I ~ III)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먼저 들불축제가 순관광객 증대에 미친 효과, 즉 들불축제 개최에 따라 직접적으로 유발된 관광객 수는 5,147명으로 추정되었다.⁶⁾

들불축제가 유효관광객 증대에 미친 효과는 내국인인 경우는 9,913명(시나리오 I)~13,259명(시나리오 II)으로 평균 11,554명이고, 외국인은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315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들불축제 개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전체 관광객은 10,228명(시나리오 I)~13,573명(시나리오 II)으로 평균 11,869명이다. 즉 유효관광객은 순관광객의 증대에 비해 약 1.9배 ~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2002년 들불축제가 관광객 증대에 미치는 효과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전체 관광객 증가 추정치
유효관광객	시나리오 I	9,913명	315명	10,228명
	시나리오 II	13,259명	315명	13,573명
	시나리오 III	11,554명	315명	11,869명
순관광객		-	-	5,147명

5) 순관광객으로 접근한 경우는 그 효과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6) 구체적인 추정과정은 제2장 관광객 수요 증가 및 소비·투자지출액 추정 부문을 참조.

2. 관광수입 증대에 미치는 효과

관광수입 증대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30.2억원(시나리오 I)~40.5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35.2억원이며, 외국인인 경우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5.1억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면 35.4억원(시나리오 I)~45.6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40.4억원이다. 이는 축제 전체 예산 3.96억원의 적게는 8.9배에서 많게는 11.5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여기에 제주도민의 지출액 23.8억원(시나리오 II)~25.4억원(시나리오 I)을 더하면 그 전체 지출증대규모는 60.9억원(시나리오 I)~69.5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65.1억원이다.

이것은 들불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더 유인할 수 있다면,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30만 5천원과 164만원이 각각 증대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2> 축제가 관광 및 도민지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시나리오 I)

(단위 : 백만원)

구분	도소매	음식및숙박	운수및보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합계
내국인	421.0	1,244.7	536.1	826.8	3,028.5
외국인	127.0	127.6	24.8	237.0	516.4
관광객소계	548.0	1,372.3	560.9	1,063.8	3,544.9
제주도민	269.3	1,165.2	529.7	583.0	2,547.1
합계	817.3	2,537.4	1,090.5	1,646.8	6,092.0

<표 3-3> 축제가 관광 및 도민지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시나리오 II)

(단위 : 백만원)

구분	도소매	음식및숙박	운수및보관	사회및기타 서비스	합계
내국인	563.0	1,664.8	717.0	1,105.8	4,050.6
외국인	127.0	127.6	24.8	237.0	516.4
관광객소계	690	1,792.4	741.8	1,342.8	4,567.0
제주도민	252.6	1,092.9	496.8	546.9	2,389.1
합계	942.6	2,885.2	1,238.5	1,889.7	6,956.0

<표 3-4> 축제가 관광 및 도민지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시나리오Ⅲ)

(단위 : 백만원)

	도소매	음식및숙박	운수및보관	사회및기타서비스	합계
내국인	490.7	1,450.8	624.8	963.7	3,529.9
외국인	127.0	127.6	24.8	237.0	516.4
관광객소계	617.7	1,578.4	649.6	1,200.7	4,046.3
제주도민	260.9	1,129.0	513.2	565.0	2,468.1
합계	878.6	2,707.4	1,162.8	1,765.6	6,514.4

3. 지역생산, 고용 및 소득증대에 미치는 효과

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가는 관광수입의 증대와 시설투자, 그리고 제주도민의 관람 비용으로 지출된 소비증대는 산업간의 연관효과에 따라 지출 이상의 산출 및 고용증대,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제2장에서 이미 38개 산업부문으로 분류된 각 투자 및 소비지출 항목인, 1차산업 관련 화훼 및 비식용작물 1개 부문, 2차산업 관련 섬유가죽제품, 인쇄·출판 및 복제, 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등 6개 분야, 3차산업은 전력·가스 및 수도, 건설, 음식점 및 숙박,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등 7개 분야 총 14개 분야의 최종수요가 증대되면 곧 지역의 생산(산출)증대, 고용증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가. 지역생산(산출)에 미치는 효과

산출증대 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42.2억원(시나리오Ⅰ)~56.4억원(시나리오Ⅱ)으로 평균 49.2억원이며, 외국인인 경우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7.2억원으로 나타나, 관광객 전체적으로 보면 49.5억원(시나리오Ⅰ)~63.7억원(시나리오Ⅱ)으로 평균 56.5억원이다. 이는 축제 전체 예산 3.96억원의 적게는 12.5배에서 많게는 16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여기에 제주도민의 지출의 산출효과인 33억원~35억원, 시설투자에 따른 산출효과 5.4억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산출증대 규모는 90.4억원(시나리오Ⅰ)~102.4억원(시나리오Ⅱ)으로 평균 96.3억원이다.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산출에는 42만 6천원과 230만 8천원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관광객 1명당 2만 3천원, 시설투자는 1백만원당 140만원의 지역산출이 각각 증대되는 셈이 된다.

<표 3-5> 2002년 축제가 지역산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관광소계	제주도민	시설투자	합계
시나리오1	4,224.3	727.0	4,951.3	3,547.0	546.1	9,044.3
시나리오2	5,649.9	727.0	6,376.9	3,326.9	546.1	10,249.8
시나리오3	4,923.7	727.0	5,650.7	3,436.9	546.1	9,633.7
1인당	0.426	2.308		0.023	1.4	

나.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고용증대 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224명(시나리오 I)~300명(시나리오 II)으로 평균 261명이며, 외국인은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34명으로 나타나, 관광객 전체적으로 보면 259명(시나리오 I)~335명(시나리오 II)으로 평균 296명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고용효과인 181명~193명, 시설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21명을 더하면 전체적인 고용증대 규모는 474명(시나리오 I)~538명(시나리오 II)으로 평균 505명이다.

<표 3-6> 2002년 축제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단위 : 명)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관광소계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시나리오1	224.4	34.9	259.3	193.5	21.8	474.6
시나리오2	300.1	34.9	335.0	181.5	21.8	538.3
시나리오3	261.6	34.9	296.5	187.5	21.8	505.8
1인당	0.023	0.111		0.001	0.1	0.003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00명과 외국인 100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고용에는 2.3명과 11.1명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000명당 1명, 시설투자는 1천만원당 1명의 지역고용이 증대되는 셈이 된다.

다.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지역증대 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30억원(시나리오 I)~40.2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35억원이며, 외국인인 경우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4.9억원으로 나타나, 관광객 전체적으로 보면 35억원(시나리오 I)~45.1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40억원이다. 이는 축제 전체 예산 3.96억원의 적게는 8.8배에서 많게는 11.4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소득효과인 24억원~25.5억원, 시설투자에 따른 산출효과 3.2억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산출증대 규모는 63.9억원(시나리오 I)~72.4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68억원이다.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고용에는 30만 4천원과 157만 2천원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명당 1만 7천원, 시설투자는 1백만원당 80만원의 지역소득이 각각 증대되는 셈이 된다.

<표 3-7> 2002년 축제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관광소계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시나리오1	3,008.5	495.2	3,503.7	2,559.7	326.1	6,389.5
시나리오2	4,023.8	495.2	4,519.0	2,400.9	326.1	7,246.0
시나리오3	3,506.6	495.2	4,001.8	2,480.3	326.1	6,808.2
1인당	0.304	1.572		0.017	0.8	0.043

IV. 요약 및 결론

들불축제 기간중의 전체 관람객 수는 개방형 축제라 집계가 어렵고,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2가지 이상의 산정방식을 이용한 결과 약 18만 1

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관람객 중 관광객 수는 먼저 자동차 대수 산정 방식에 의하면 약 2만 9천여 명으로, 샘플조사 비율에 의한 결과는 약 3만 8천여명으로 나타나 이의 평균치를 이용한 결과치는 약 3만 4천여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들불축제가 직접적으로 유인했다고 할 수 있는 순관광객은 5,147명으로 추정되고, 직접적으로 유인된 관광객과 부수적 목적으로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을 합한 유효관광객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0,228명 최대 13,573명으로 추정된다.

들불축제 참가를 위해 관람객들이 지출한 비용은 관광객인 경우에는 42,354원, 도민의 경우에는 16,705원으로 추정되어 전체적으로는 1인당 약 2만 3천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수입 증대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약 30~40억원으로 평균 35.2억원이며, 외국인인 경우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5.1억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면 약 35~45억원으로 평균 40.4억원이다. 이는 축제 전체 예산 3.96억원의 적게는 8.9배에서 많게는 11.5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여기에 제주도민의 지출액인 24.6억원을 더하면 그 전체 지출증대규모는 약 61~70억원으로 평균 65.1억원이다. 이것은 들불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더 유인할 수 있다면,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내·외국인 각각 30만 5천원과 164만원이 증대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생산 산출증대 효과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평균 56.5억원이다. 이는 축제 전체 예산 3.96억원의 적게는 12.5배에서 많게는 16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산출효과인 33억원~35억원, 시설투자에 따른 산출효과 5.4억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산출증대 규모는 약 90~102억원으로 평균 96.3억원이다.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산출에는 42만 6천원과 230만 8천원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명당 2만 3천원, 시설투자는 1백만원당 140만원의 지역산출이 각각 증대되는 셈이 된다.

지역고용증대 효과는 내·외국인 관광객 전체적으로 보면 259~335명으로 평균 296명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고용효과인 181명~193명, 시설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21명을 더하면 전체적인 고용증대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474~

538명으로 평균 505명이다.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00명과 외국인 100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고용에는 2.3명과 11.1명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000명당 1명, 시설투자는 1천만원당 1명의 지역고용이 증대되는 셈이 된다.

지역소득증대 효과는 내·외국인 관광객 전체적으로 보면 약 35~45억원으로 평균 40억원이다. 이는 축제 전체 예산 3.96억원의 적게는 8.8배에서 많게는 11.4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소득효과인 24억원~25.5억원, 시설투자에 따른 산출효과 3.2억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산출증대 규모는 약 64~72억원으로 평균 68억원이다.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고용에는 30만 4천원과 157만 2천원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명당 1만 7천원, 시설투자는 1백만원당 80만원의 지역소득이 각각 증대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전체 관람객 및 관광객의 규모, 관광객 수요 및 소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12.
- 고성보·정승훈, “2001년도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종합평가(경제분석)”,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 결과보고서』, (사)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2001.
- 김규호·김사현,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관광학연구』 제22권 1권, 1998.
- 송재호·고성보·윤동구, “제주도 관광산업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경영경제연구』 제2권,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0.8.
- 이강욱,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8.11.
- 이춘근,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구유치 타당성 분석』,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0.5

- 이충기,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산업연관 (Input-Output)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2권 3호, 한국관광학회, 1999.
- 제주도, 『통계연보』, 각년도
- 정강환, 『이벤트관광전략』, 일신사, 1999.
- 제주발전연구원, 『2002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02.3.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 통계청 internet site <http://www.nso.go.kr>
-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투입-산출분석』, 1993.
- 한국관광공사 internet site <http://www.knto.or.kr>
- Miller, R. E. and P. D. Blair,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Inc., 1985.